

二

蕙谷兄의 말을 들으면 이곳 林間에는 石佛이 이곳저곳에 安置되어 있었다는바 戰後 혹은 자취를 감추고 몇 軀는 閣內에 保管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小像 以外에 아직도 先生에 의하여 配置된 그 자리를 지키는 比較的 큰 石佛이 있는데 하나는 坐像이요 다른 하나는 立佛이다. 이들은 모두 臺座와 光背를 具存하지 못한 佛身뿐인데 保存은 그런대로 良好한 편이다. 먼저 年代로 보아 坐像이 앞서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 基座는 서로 마려진 것이나 前後의 板石만은 古塔基壇의 面石을 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面石에는 각기 四天王 立像이 一軀씩 새겨 있어 古拙소박한 솜씨를 보이는 바 그 中 前面것이 左手寶塔에서 多聞天으로 보인다. 이 基座위에는 一枚의 方形蓮花臺石이 놓였는데 元來 이 坐像의 것으로 생각된다. 如來像인 바 작은 차들이 많이 섞인 花崗石이어서 조각의 솜씨는 精密하지는 못하다. 結跏趺座하였고 右肩偏袒으로 觸地降魔手印을 보이고 있다. 豐滿한 相好나 堂堂한 體軀 넓게 퍼진 두 어깨에서 받는 量感과 사실적인 作風 등에서 新羅樣式系의 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先生께서는 日人 天池(商人名)로부터 購入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을 뿐 搬出된 땅은 알 수 없으나 혹시 慶尙道가 아닐까 한다. 背面 솜씨에서 光背가 推定되는 바 坐高一 m 二五 膝幅一 m 肩幅八一 cm이다.



다음에 長身庾軀의 立像인데 그 三段臺石 위에 身部下端이 嵌入되었고 兩足の 表現은 없다. 이것은 原來의 臺石이 따로 만들어져서 아마도 그 上面에 兩足이 새겨졌던 것으로 보이거나 어떠한 事情인지 身臺가 分離된 것으로 보인다. 身部는 斷面三角形으로서 上下가

筒體를 이루고 있는 바 刻線은 前面만으로 通肩의 法衣는 左右로 퍼졌으며 兩腕도 身軀에서 겨우 벗어나 날 뿐 모두 屈折하여 胸前에서 모은 것이 몹시 궁색하다. 肉髻가 있는 頭部와 납작한 顔面은 멧없이 키가 큰 身部에 比例하여 작은 편인데 民間信仰에 따르면 造形으로서는 그대로 볼 만한 作品이다. 筆者는 이같은 作品은 年代를 훨씬 내리서 高麗中期以後에 두고 주로 忠淸, 全羅 등 옛百濟故土를 中心으로 한 때 流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佛敎가 한층 地方에 普及되어 民俗과도 習合된 時代의 所産이다.

그런데 筆者는 언제나 이같은 선물形 長身佛의 祖形으로서 扶餘 錦城 山石佛立像(扶博藏)을 먼저 생각하는 바 이 扶餘像은 百濟下代의 作으로 볼에 아직 異議가 없는 것 같다. 그리하여 이같은 百濟古佛이 이 地域에서 하나의 基準作이 되어 그것이 復古的인 地方樣式으로서 再現되므로서 一系의 作品들이 造成된 듯 하다(公州博物館門內向左立像·益山 古都里 石佛·唐津 安國寺立佛等) 이것은 마치 扶餘邑南의 百濟五層石塔(定林塔)이 百濟의 孤塔으로서 남으면서 高麗에 들어서 流行한 同樣式系塔의 典型이 된 것과 매우 類似하다(扶餘長蝦里塔·鷄龍山男妹塔·舒川庇仁塔·井邑隱仙里塔·金堤歸信寺塔 모두 이 樣式系의 高麗塔들이다)。그 리하여 潤松의 百濟佛이 아니냐 하시며 湖南(群山附近)搬出이라 傳한다고 하신 來歷을 나는 나의 생각대로 이와같이 解釋하고 말았다. 이같이 혼자 固執을 부릴 때는 先生으로부터 연방 「대처승」 「황거물」이라는 「너 크네임」을 받게 된다. 오래간만에 葆華閣을 찾아가 이 石物들을 대하면서 先生의 말씀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新春을 맞아 葆華閣에도 새 出發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像高二 m 四十 肩幅六七 cm。

謙齋畫嶠南名勝帖의 慶州 骨窟石窟圖

全 映 雨

數年來 慶州石窟庵의 重修工事が 進行되고 있어 그 完工도 머지않은
이 지음 先考의 所藏品 一部를 整理하다가 葦滄先生이 謙齋書南名勝嶠帖
이라 題한 上, 下 兩卷의 畫帖中 慶州地方의 風景 三幅이 있고 그 하나
에 骨窟石窟이라 題한 寫生畫가 실려 있어 여기에 紹介하고자 한다.

本『謙齋書嶠南名勝帖』은 先考가 一九三一年 十月十九日 當時 永樂町
에 있었던 荒木朴堂이라는 古美術商에서 吳鳳彬氏를 通해서 入手한 두
卷으로 된 畫帖으로서 陝川 海印寺를 비롯하여 安東의 靑涼山, 東萊의 海
雲臺等의 嶺南各處의 名勝絶景을 그린 것으로 表題의 『嶠南』도 『嶺南』을
稱하는 것으로 生覺된다. 第一卷은 三十面 其二卷은 二十八面, 都合五
十八面 比較的 큰 畫帖으로서 後尾에 題跋 一面을 加하고 있다.

이 慶州 骨窟石窟圖는 第一卷의 二十三面에 실려있는 크기 三十八cm
×二十六cm의 紙本에 淡彩한 米法流의 風景畫로서 그의 題跋로 보아서
癸丑——一七三三年(英祖九年)即 謙齋 五十七歲時의 作品임을 알 수 있다.

일찌기 蒼勁風骨을 表現한 그의 許多한 다른 山水에 比하면 多少 畫品
이 아쉬운 感이 없지 않으나 當時의 絶景과 史蹟을 當代名家의 손을 빌
어 二百餘年이 지난 오늘날 欣然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史料로서 보나
風景畫로서 보나 자못 興味있는 일이다. 畫面을 通해 보면 東南쪽의 어
느 언덕에서 이 骨窟과 石窟을 바라본 것으로 作畫되어 있으며 굽어 보



이는 마을과 멀리 전
너다 보이는 마을 사
이에 吐舍山頂이 左
右側으로 平野가
타트여져 있으며 마
을 넘어 멀리 바라 보
이는 山봉우리들의
畫面布置가 잘 짜여
져 있다.

石窟은 吐舍山중

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서 右側으로 쳐져서 매우 險阻한 斷崖에 骨
窟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表現되어 있다. 畫面에서 보면 石窟과 骨窟이
너무나 近距離에 있는 것 같은 感을 주고 있으나 이것은 作畫時 畫面의
排布上 不可避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狹少한 畫面에 廣大한 地域을
壓縮해서 表現해야 되는 고충이 있는 것이다. 이 畫帖中에서도 거의 每
幅마다 그러한 表現을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謙齋는 特有의 一種의 距離
感을 나타내면서 遠隔한 이산저산의 山相을 바로 앞에다 붙여 놓는 경
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 畫面에서도 石窟庵이 表示된 吐舍山은 現實에
방물한 優雅스러운 山相을 米法으로 表現했으나 여기에 接續된 것같이
그런진 骨窟이 있는 部分의 山相은 層岩絶壁과 奇巖怪石으로만 된 所謂
皆骨山相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이 吐舍山과는 분위기가 다른 別個의
環境임을 알 수 있도록 表現되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愚潭丁時翰先生의
『山中日記』에도 『……凡谷村在巖石上頗幽邃路逢祇林寺僧俊還行十五餘里
骨窟上前峴望見石峯奇怪如怪石形層層有窟窟前構假簷壁施彩望中彩閣五
六柱在巖間宛如畫圖』라 表現한 것과도 잘 부합이 된다. 여기서 凡谷村
이라 함은 勿論 現地名인 上虎谷과 下虎谷의 이름인 듯 하며 몇가지 분
명치 못한 點을 除外하고는 이 記錄의 地勢와 그림속의 骨窟表現이 實
地와 닮았다고 하겠다. 생각하건대 本畫帖이 모두 處處의 名勝絶景을 直
接寫生한 것인지 後日에 記憶을 더듬은 作畫가 아닌지 하는 點에 의심
도 없지 않다. 여기에 後尾의 題跋을 그대로 引用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獻齊直所次李仲元訪華村詢要其留宿
一留君母惜月元我當歸直所貴

伯被山齊未拂衣逢迎皆有^心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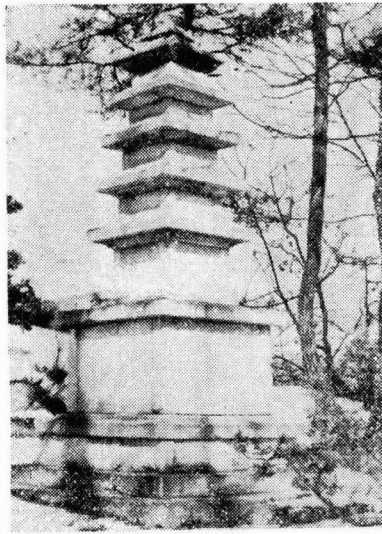
往莫相稀洛城^他妓夜從榮魂夢飛
癸丑南至前二日借仲山齊倚宿而歸
後二日仲元又踵至有徑歸一意^技

此以挽臘月初吉謙考題畫^元伯

以上과 같이 題跋文中에는 判讀이 不可能한 字가 있으며 또 李仲元이라는 人物에 對하여도 알려진바가 없고 華村이라는 地名亦是 밝힐수가 없으나 後補를 期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다만 간단한 紹介에 그치기로 한다.

葆華閣의 石塔

金 禧 庚



(1) 五層石塔(塔婆目録總 P. 4 NO. 27)

總高三·九二m의 整齊한 塔으로 五層屋蓋만은 他塔의 것을 썼던듯 함 地臺石위에 下層基壇이 놓였는데 中臺石四面엔 各面三씩 眼象을 刻하고 下臺甲石은 二枚石이며 위에 뒷받침 二段造出함 上層基壇은 四面石으로 各面兩隅柱과 撐柱一씩 刻出하고 上臺甲石엔 塔身괴임을 三段마련함. 初層南面에 鏤形을 刻함 層마다 屋身과 屋蓋石이 各一石造이고 二層은 初層에 比하여 減縮率이 甚한편인데 屋蓋落水面은 短促함 屋蓋받침은 四層까지는 四段씩이고 五層만이 三段인데 若干 비틀어짐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이 一石造이고 귀퉁이 있음 眼象이 鮮明하여 麗代의 特色을 잘 나타낸 點과 隅柱를 비스듬히 刻出한 것이 注目된 拜禮石이 있음.

實測值(單位cm)
 基壇高 幅 撐柱 幅
 甲石長 甲石厚
 下層 一四·〇 一四
 五·〇 一四〇·七
 一·一〇

上層 六九·〇 一一三·五 一二·五 一三一·〇 一一·〇

塔身高 幅 隅柱 幅 屋蓋長 轉角 露盤高 一一·〇

一層 四一·〇 六六·五 一〇·五 九六·五 九·五 地臺石 幅 二二九·〇

二層 一七·〇 五九·〇 九·〇 八八·五 九·〇 地臺石 高 一六·〇

三層 一六·〇 五四·〇 八·八 八二·〇 九·〇

四層 一四·五 四八·〇 七·八 七五·八 八·五

五層 一一·〇 四四·〇 七·五 六三·五 五·〇

(2) 葆華閣庭三層石塔(塔婆目録 P. 4 NO. 28)

現高二·四五m의 아담한 塔임 地臺石(二枚로 後補) 위에 蓮花紋下臺石이 놓이고(覆蓮瓣各面三枚씩) 造出된 二段의 받침위에 간석이 있고 그 위의 蓮花紋上臺石(各面에 仰蓮瓣三枚刻)은 二段의 塔身괴임을 造出하여 第一塔身을 받음 屋身은 通式이고 屋身, 屋蓋石은 各一石造이다. 屋蓋石落水面에 완곡이 있고 괴임 一段을 造出 轉角은 返轉이 있어 輕快한 感이 있다. 屋蓋받침은 各層이 三段이고 二層부터 減縮率이 甚하고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이 一石造임.

實測值(單位cm)

地臺石 高 幅 隅柱 臺座高 幅

二七·〇 一六〇·〇 下臺 二一·〇 一一〇·〇 上臺 一八·五 九一·〇

간 석 四二·五 六六·〇 五·〇 露盤 高 九·五 覆鉢 九·〇

一層 三〇·五 四六·五 八·五 七五·五 一〇·五

二層 一〇·五 三六·五 七·〇 六三·〇 一〇·二

三層 八·五 二七·七 五·五 四八·〇 一〇·〇

(3) 葆華閣後面三層石塔(塔婆目録 P. 4 NO. 28)

現高三·五五m 相輪部는 一石造로 後補各層屋蓋石이 다름 地臺石上의 基壇은 各面四枚石인데 二枚는 各面隅柱와 撐柱一을 刻하고 二枚는 各面隅柱만 刻함, 甲石에는 副緣과 塔身괴임이 三段 各層屋蓋石과 屋身은 各一石이고 一屋身南面에만 扉形속에 鏤形을 模刻함 屋身은 層마다 各面에 隅柱를 淺刻하고 一, 三層屋蓋의 落水面의 勾配가 急함 屋蓋石